

■ 광우병 보도 '검찰 vs PD수첩' 쟁점은

아래사 빈슨 死因 의도적 왜곡 있었나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 검찰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고 판단했다.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은 동물 학대의 실태를 고발하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인데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진행자가 다우너 소 동영상 후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PD수첩의 "진행자의 생방송 중 말실수"였다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래사 빈슨의 사인(死因) = 아래사 빈슨 씨의 사인에 대해 빈슨 모친이 딸의 사인을 말하면서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라고 한 부분을 PD수첩이 vCJD(인간광우병)로 번역해 내보낸 것도 쟁점이다. 검찰은 PD수첩이 빈슨 씨가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인을 vCJD(인간광우병)인 것으로 기정사실화 시켰다고 결론내렸다.

빈슨 모친이 MRI(자기공명영상)결과에 관해 'CJD'라고 말했는데 이를 'vCJD'로 잘못 자막 처리하고, 뒤이어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의 인터뷰를 방송해 미국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제

검찰은 29일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관련 보도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 내용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PD수첩 측은 그동안 해명 방송 등을 통해 일부 '말실수' 등 잘못된 부분은 시인했지만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검찰 "다우너 소 동영상은 광우병 의심소로 일방적 각인" PD수첩 "말 실수·의역한 것...허위 사실 전하지 않았다"

기한 다양한 가능성은 무시하고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정반적인 번역 오류 문제=검찰은 PD수첩이 빈슨 모친 등의 인터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5~6군데에서 잘못된 자막 처리 및 오역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단순한 오류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PD수첩이 원본을 소개하면서 'dairy cow'를 '젖소'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하고 'charged with animal cruelty'를 '동물학대를 받고 있는'이 아니라 '광우병 의심 소를 먹지로 일으켜'로 번역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PD수첩은 수차례

유감을 표명하거나 의역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내용을 왜곡해 허위의 사실을 전한 일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한국인 광우병 발생 위험 영국인의 3배"=검찰은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의 감염 위험에 관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MM형이 인간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유전자형에 비해 한국인의 발생 확률은 94%로서 영국인에 3배, 미국인에 2배"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9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코리아농장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사들이 4년 7개월 만에 수입된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증인 채택 공방... 쇠고기 국조 또 파행

與野 'PD수첩 VS 최시중' 출석 팽팽히 맞서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가 29일에도 사실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원 구성이 지연되고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를 맞는 등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쇠고기 국정조사 간사협의를 가졌으나 MBC 'PD수첩' 측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히 맞서 다음달 4, 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그러자 야권 특위위원들은 29일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고, 이에 나경원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공방만 주고 받다가 사실상 또 파행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는 정부의 쇠고기협상 과정뿐 아니라 '광우병 과담'이 사실인지도 밝히는 게 목적"이라며 PD수첩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쇠고기 협상과는 관련없는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야 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며 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넘겼다.

또 민주당 강봉균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기업 대책특위'의 무력화에 나섰다 주장하며 '공공기관 선진화 및 사장단 인사문제 청문회'를 다음달 11~12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공세를 폈다.

이처럼 여야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 장기공천 끝에 임시방편으로 발족시킨 특위마저 파행하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원구성도 물건너 갈 위기에 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감사원장·장관 인사청문회 무산

원 구성 난항에 상임위 못 열어

18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감사원장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시한 내 개최가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은 김항식 감사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

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4건. 이들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늦어도 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별도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감사원장 청문회를 제외하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실시토록 돼있는 3개 장관 인사청문회는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상임위조차 꾸려지지 못한 상태여서

개최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그 대안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청문회 개최는 요원한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한 내 청문회 개최가 무산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 문제를 놓고 힘겨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채택 문제를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청문회 거르고 새 장관들 내주 임명

'20일 이내' 기한 만료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기한 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 내주 중 공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0일로 꼭 20일이 된다"면서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20일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없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기한일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송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 만큼 그 조항에 따라 31일 곧바로 청문결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임명 시점에 대해 "국회에 청문결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때 최장 10일의 기한을 둘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일 정도 두는 게 관례로, 현재 3~5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내달 3~5일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이들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쇠고기 국조 청문회·기관보고 연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내달 4, 7일 예정된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와 기관 보고를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민주당에서 기관 보고부터 청문회까지 통째로 연기하자는 요청이 왔다"면서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입장을 정했고, 내일 오전 9시30분 국조 회의를 열어 일정 연기를 의

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쇠고기국조 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관보고라는 것이 청문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청문회를 연기하는 것인데 청문회 일정이 증인 때문에 무산된 상태"라며 "기관보고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자료라도 받아야 하는 데 이런 상태로는 기관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조 특위는 내달 4, 7일 각각 1, 2차 청문회를 갖고 이에 앞서 30, 31일 관계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

이었으나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청문회 일주일 전으로 규정된 증인·참고인 채택 시한을 넘겨 당초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특히 민주당은 내달 8일부터 베ijing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청문회 일정을 아예 상당기간 연기하자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향후 일정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리점 모집

신규사업, 식품제조, 식품판매, 식품유통, 식품가공, 식품보관, 식품수출, 식품수입, 식품개발, 식품연구, 식품교육, 식품전시, 식품행사, 식품광고, 식품홍보, 식품매출, 식품이익, 식품성장, 식품발전, 식품혁신, 식품경쟁, 식품협력, 식품융합, 식품혁신, 식품경쟁, 식품협력, 식품융합

홍선엘리시아(ELYSIA)

상업·주식·소매 www.elysia.com

홍선엘리시아(ELYSIA)는... (text describing the business opportunity)

홍선엘리시아(ELYSIA)는... (text describing the business opportunity)

홍선엘리시아(ELYSIA)는... (text describing the business opportunity)